

'76명 확진' 담양발 집단 감염 구상권 청구 광주시 딜레마

20여 일새 광주 54명 등 연쇄 감염, 행정력-예산 낭비

감염경로 감감·고의성도 불명확·당국 "실효성 글썄요"

20여 일 만에 7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전남 담양 지인모임 발(發) 집단 감염과 관련, 광주시가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방역 수칙을 연거푸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고의성과 최초 감염원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소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리면서 딜레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 당직자들이 다수 포함된 담양 지인모임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6명으로, 이 가운데 광주 확진자는 54명, 비율로는 71.1%에 이른다.

시는 담양발 광주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선 데다 수행비서를 비롯해 일부 당직자들이 식당 등지에서 7~8명 지인모임을 갖고 광주 유흥주점에서도 방역수칙을 어긴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방역수칙을 수 차례 어졌고, 이로 인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가 적지 않음에도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방문 판매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광주를 방문해 가족과 식사를 해 집단 감염을 일으킨 송파 60번 확진자와

지난해 8월 광화문집회에 광주지역 참석자를 모으고 인솔한 목사에 대해 역대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선례도 감안됐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제기되면서 실제 청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최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담양사무소 당직자들을 다수 전파자(일명 슈퍼전파자)로 단정하기 쉽지 않고, 동선 대부분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확진 전에 이뤄진 점, 지인 모임에 참석한 뒤 확진된 당직자가 여럿인 사실, 광주와 전남의 광역 경계를 넘나들며 확진이 이뤄진 점도 신중론을 키우고 있다.

초기 확진자들의 주요 동선은 4월7

일 담양사무소 당직자 중심 3차례 연석 모임, 4월5~8일 이 의원 수행비서 지인 만남, 4월9일 이 의원 수행비서 광주 유흥주점서 5인 이상 모임, 4월 11~13일 이 의원 지역구 활동, 4월13일 담양군청 일부 직원 이 의원 면담 등이다.

무엇보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고의성이 핵심인데,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증거가 명확치 않고 법무부 매뉴얼에도 인과성을 중시해 당국이 판단에 애를 먹고 있다. 고의성이 다분한 송파 60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방역 당국의 기본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시 코로나19 법정 처벌위원회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이고, 법무팀에서는 실효성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비와 확



진자 치료비 등 적은 예산이 사용된 만큼 집단 감염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 소송은 불가피하지만 고의적 전파나 방역 비협조 등

의도성이 명확치 않아 소송의 실효성도 공공히 따져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외국인 유학생 모내기 체험'

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민속촌에서 박경희 새마을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장성 공무원발 '연쇄감염'...광주 거쳐 나주까지 확산

광주 12명·나주 4명 확진...나주 모 고교 전수조사 결정

방역당국 고교 교직원·재학생 450여명 대상 전수조사 실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전남 장성군 면사무소 공무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광주를 거쳐 나주까지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초비상이다.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장성군 A면장(전남1049번)발 연쇄감염으로 이날 오전까지 나주 주민 4명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확진자는 광주2424번(나주 거주 여성), 전남1057·1058·1062번으로 분류됐다.

가장 먼저 지난 1일 확진된 광주 2424번은 A면장과의 접촉으로 감염된 광주 주민과 함께 광주 남구 사우나에서 동선이 겹쳐 감염됐다.

이후 나주 주민인 광주2424번의 남편(전남1058번)과 딸(전남1057번)도

지난 2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1062번은 광주2425번의 여동생이며, 가족 간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 광주2425번과 2424번은 지인 관계이다.

문제는 전남1057번의 동선이다. 해당 여성은 확진 전에 나주시 대호동의 한 컴퓨터 게임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마친 인근 모 고등학교 학생 13명과 동선이 겹쳐 해당 고교생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나주시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고교생 중에서는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학교 내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일 오전 해당 고교 교직

원과 학생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3일 현재까지 장성군 A면장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자는 광주 12명, 전남 5명(나주 4명·장성 1명) 등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달 29일 확진된 장성군 A면장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자가용을 이용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모 독서실을 이용하고, 27일에는 같은 지역 모 교회 예배에 참석해 관악기를 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면장과 독서실에서 동선이 겹친 광주 북구 모 고교생 1명이 확진돼 해당 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전수검사를 받았다.

A면장이 다녀간 교회에서도 2명이 감염됐고 교인을 통해 가족과 남구 모 사우나 이용자, 나주로 감염이 확산됐다.

기동채본부

광양항 화물선서 석탄 하역 인부 2명 사상

3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광양시 광양항 원료 부두에 정박 중인 9만 3342t급 화물선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중장비에 깔렸다.

이 사고로 A(39)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인부 B(52)씨도 다리를 다쳐 이송됐다.

사고 당시 이들은 화물선에 실린 석탄을 항만에 내리는 작업에 참여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탄 운반에 쓰이는 중장비에 의해 난 사고로 추정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손님과 다투다 흥기 찌른 술집 주인 검거

반주하기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손님과 시비하다 흥기로 찌른 40대 술집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3일 술집 주인을 흥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업무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나주시 대호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인근에서 손님 B(31)씨를 흥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연습 반주하기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달라"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일행이 술집을 빠져나가자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